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Self-Esteem on Creative Personality

한주영¹ 오주은²

Juyoung Han¹ Jooeun Oh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self-esteem on their creative personality.

Methods: The sample consisted of 332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enrolled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Incheon. Teacher-report measures of playfulness, self-esteem, and creative personality scal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instrum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variables based on children's gender, while age and birth order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ly,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creative personality. Specifically, among the sub-variables, cognitive spontaneity and humor in playfulness, along with competency in self-esteem, showed relatively higher levels of impact on young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findings emphasize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that foster playfulness and self-esteem to enhance young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This includes providing proper teacher training and a range of instructional materials, along with parental education.

Key words young children, playfulness, self-esteem, creative personality

* 본 논문은 2023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및 202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교사

2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juneoh@inu.ac.kr)

I. 서론

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변화에 잘 적응하며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타인과 달리 독특하며 다양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과 바람직한 성향, 정서가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문용린 등, 2010).

창의적 인성은 창의성 개념에 인성을 결합한 합성어이다. 창의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력 관련 요소와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 특성 또한 발달에 중요한데, 창의성의 요소 중

에서 성격과 관련된 요소를 창의적 인성이라고 정의한다(정다운, 김정희, 2015; Feist, 2010; Schaffer & Kipp, 2013). 이러한 창의적 인성을 유아들에게 적용한 정의로 유아의 창의적 인성이란, 유아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향이나 태도 또는 흥미를 의미하며,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되는 성품이나 정서가 내포되는 독특한 개인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조현정, 2010).

최근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유아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서나 성격, 동기 등과 같은 창의적 인성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임귀자, 2011; 장영숙, 조정화, 2010; Feist, 2010). 즉, 총체적 발달이 진행 중인 유아기는 창의성의 객관적 측정이 쉽지 않기에 유아의 창의적 사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유아가 어떠한 창의적 성격 특성이나 내적 동기가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창의적 인성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어 있다(심숙영, 문시연, 2015; Kaufman & Sternberg, 2019).

선행 연구자들은 유아기를 창의적 인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바라본다(김호, 2016; 옥태순, 2016; 정선화 등, 2011). 창의적 인성은 선천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후천적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종덕, 문정화, 2011). 또한, Berkowitz와 Grych(2000)은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영유아기에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Torrance(1976)는 유아기에 호기심과 탐구심이 절정을 이루어서 창의성 교육을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창의적 인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놀이성이다. 박정옥과 김준희(2000)는 놀이성이 높은 유아들이 놀이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사용하며, 놀이성이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놀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현장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곧 생활이자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놀이 없는 활동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정미, 2016). 따라서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창의적 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요인인 유아의 놀이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Aguilar(1985)는 유아들이 놀이 상황에서 놀이 행동에 개인차를 보이는 것은 놀이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Vygotsky(2004)는 유아의 놀이를 창의성의 외적 출현이며, 창의성의 초기 형태로서 놀이 속에서 과거의 경험을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수현(2017)도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창의성까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놀이성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수현(2017)의 연구에서는 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 감각이 창의적 인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김영랑, 2022; 정미라 등, 2015)에서도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놀이성과의 관계를 창의적 인성에 집중하여 살펴본 연

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다. Piirto(1998)와 Cropley(2001)는 창의적 표현을 위해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창의성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가치감과 평가 요소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박은희(2010)는 자아존중감과 창의성이 상관이 있으며 현실에서 건강하고 창조적 적응을 돕는다고 했으며, Yau(1991)도 건강한 자아존중감이 생산적 창의성을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최근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이나 정서 지능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소향, 조준오, 2016),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유아는 아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성은현, 2005; 박숙희, 유경훈, 2011)을 살펴보면, 창의적 인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를 밝힌 몇몇 연구들(김소향, 조준오, 2016; 조현정, 2010)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창의적 인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등에 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현장에서도 창의적 인성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교사와 부모 변인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장영숙, 2008; 하주현, 2001; 홍미경, 2008)과 창의적 인성 함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김선진, 2015; 박찬옥, 김진희, 2014)이 대부분이며, 유아 변인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또 앞서 언급한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변인으로 두고서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의 내적 변인 중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이나 창의적 인성에 성별과 연령, 출생순위도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연구들(옥태순, 2016; 유연옥, 허미자, 1999; 홍미경, 2008)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로 구분하여 각 변인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성을 규명하여 유아교육에서 창의적 인성 발달에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해주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일반적 배경(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른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세 유아 182명, 5세 유아 150명, 총 332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4세와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아존중감과 자아 인식이 더욱 확연하게 형성되고 측정되는 시기가 4세 이후라는 근거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가 크지 않도록 고려했기 때문이다(Stipek & MacIver, 1989). 유아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332)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아	166	50
	여아	166	50
연령	만 4세	182	54.8
	만 5세	150	45.2
출생순위	첫째	190	57.2
	둘째	115	34.6
	셋째 이상	27	8.1
합계		332	100.00

2. 연구도구

1) 유아의 놀이성 측정 도구

유아의 놀이성 측정을 위해 김종석(2011)의 놀이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도구는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이다. 담임교사가 관찰을 바탕으로 직접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놀이성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신체적 자발성	신체의 활용 정도와 협응 정도	1-4	4	.830
사회적 자발성	또래와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능력	5-9	5	.863
인지적 자발성	상상력과 창의력, 융통적 사고력	10-14, 20	6	.831
즐거움의 표현	잘 웃고, 행복/즐거움을 표현하는 정도	15-19	5	.836
유머 감각	재미있는 사건의 인식력, 세련된 장난기	21-25	5	.914
전체			25	.945

2) 유아의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유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단현국과 이미숙(2006)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 4개 하위요인 총 31문항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이다. 담임교사가 관찰을 바탕으로 직접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유능감	과제 해결의 자발적 의지를 보이며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려는 실제적인 행동	1-11	11	.922
소속감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행동하는 것	12-20	9	.930
가치감	사회적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에 반영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	21*-26*	6	.872
통제감	행동의 선택과 결과를 수용하며 자신의 욕구, 정서,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하는 것	27-31	5	.694
전체			31	.947

*역채점 문항

3) 유아의 창의적 인성 측정 도구

유아의 창의적 인성 측정을 위해 Rimm(1983)의 PRIDE를 참고해 이영 등(2002)이 제작한 RSCCP 교사용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독특성-호기심, 개방성-유머, 민감성-다양한 흥미, 상상력-놀이성, 독립성-몰두 5개 하위요인 총 46문항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이다. 담임교사가 관찰을 바탕으로 직접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창의적 인성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독특성-호기심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변 사물에 독특한 관심을 표현하는 특성	1,2,4,8,11,13-15, 17-19,21,24,32,43	15	.876
개방성-유머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재밌는 이야기와 농담을 즐기는 특성	3,6,9,26-27, 33-36,38,42,45	12	.854
민감성-다양한 흥미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주변의 다양한 일에 관심 보이는 특성	10,16,20,29, 31,37,39-41	9	.698
상상력-놀이성	상상 놀이를 즐기고, 현실적이기보다 새롭게 상상적 행동을 하는 특성	5,7, 12,23,44	5	.699
독립성-몰두	일에 몰두하고 완수하려고 인내하며, 스스로 시도하려는 특성	22,25, 28*,30,46	5	.828
전체			46	.945

*역채점 문항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도구의 적합성, 문항 이해도, 자료 수집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평균 20분)과 제시 문항의 적절성 및 이해도를 확인했으며, 문제가 보고된 문항이 없어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5주간 실시했으며,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구의 취지를 소개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의 4세, 5세 담임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각 교사가 담당 학급의 출석번호 앞번호 남녀 유아 1명씩 총 2명을 평정하도록 해서 유아 선정 시 교사의 편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배포 시 약 20분의 소요 시간 및 작성법을 설명한 안내문도 함께 제공하여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6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유아의 일반적 배경(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했으며,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은 전체값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 전체값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요인에서는 남아와 여아가 각각 다른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자발성($t = 2.22, p < .05$)에서는 남아($M = 3.81$)가 여아($M = 3.57$)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자발성($t = 3.55, p < .001$)과 인지적 자발성($t = 2.52, p < .05$)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른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만 5세가 만 4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

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전체에서는 둘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의 차이 (N = 332)

변인	하위요인	남아 (n=166)	여아 (n=166)	t
		M(SD)	M(SD)	
유아의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3.81(1.01)	3.57(.94)	2.22*
	사회적 자발성	3.31(.87)	3.66(.95)	-3.55***
	인지적 자발성	3.51(.75)	3.72(.80)	-2.52*
	즐거움의 표현	3.93(.75)	4.04(.80)	-1.23
	유머 감각	3.70(1.07)	3.55(1.03)	1.29
	전체	3.64(.75)	3.72(.77)	-0.91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능감	3.54(.78)	3.82(.76)	-3.29**
	소속감	3.28(.86)	3.68(.75)	-4.53***
	가치감	3.86(.85)	4.11(.81)	-2.80**
	통제감	3.40(.69)	3.72(.58)	-4.48***
	전체	3.50(.66)	3.82(.59)	-4.59***
유아의 창의적 인성	독특성-호기심	3.39(.59)	3.55(.59)	-2.48*
	개방성-유머	3.35(.59)	3.51(.60)	-2.52*
	민감성-다양한 흥미	3.32(.60)	3.50(.59)	-2.73**
	상상력-놀이성	3.32(.58)	3.50(.58)	-2.74**
	독립성-몰두	3.40(.59)	3.56(.61)	-2.45*
	전체	3.36(.59)	3.53(.59)	-2.58*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창의적 인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창의적 인성과 다른 주요 독립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은 $r = .40 \sim .67$ 의 정적상관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은 $r = .30 \sim .76$ 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6.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N = 332)

변인	하위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놀이성	1. 신체적 자발성	1																		
	2. 사회적 자발성	.53**	1																	
	3. 인지적 자발성	.64**	.67**	1																
	4. 즐거움의 표현	.60**	.63**	.88**	1															
	5. 유머 감각	.65**	.51**	.71**	.65**	1														
	6. 전체	.80**	.79**	.92**	.88**	.84**	1													
자아존중감	7. 유능감	.50**	.63**	.75**	.62**	.56**	.73**	1												
	8. 소속감	.21**	.68**	.43**	.44**	.27**	.48**	.55**	1											
	9. 가치감	.34**	.54**	.48**	.50**	.34**	.52**	.55**	.45**	1										
	10. 통제감	.27**	.51**	.49**	.43**	.34**	.48**	.65**	.61**	.40**	1									
	11. 전체	.43**	.75**	.69**	.63**	.48**	.70**	.88**	.83**	.73**	.77**	1								
창의적 인성	12. 독특성-호기심	.43**	.53**	.67**	.57**	.59**	.66**	.75**	.52**	.33**	.60**	.70**	1							
	13. 개방성-유머	.42**	.52**	.67**	.56**	.59**	.66**	.74**	.51**	.32**	.59**	.69**	.99**	1						
	14. 민감성-다양한 흥미	.40**	.51**	.63**	.52**	.55**	.62**	.73**	.51**	.30**	.59**	.68**	.99**	.99**	1					
	15. 상상력-놀이성	.41**	.52**	.66**	.55**	.58**	.65**	.73**	.52**	.32**	.59**	.69**	.99**	.99**	.99**	1				
	16. 독립성-몰두	.42**	.56**	.65**	.56**	.57**	.66**	.76**	.55**	.35**	.63**	.72**	.97**	.97**	.97**	.97**	1			
	17. 전체	.42**	.53**	.66**	.56**	.58**	.66**	.74**	.52**	.33**	.60**	.70**	.99**	.99**	.99**	.99**	.99**	.98**	1	

** p < .01

2)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전체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대한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전체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앞서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령과 출생순위 변인은 제외하고 유아의 성별 변인만을 상대적 영향력 분석 시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제 변인인 유아의 성별을 1단계에 투입하고, 유아의 놀이성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3단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와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1.87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는 10 미만인 1.09~2.16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5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36.52, p < .001$).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아의 놀이성이 창의적 인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3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도 창의적 인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4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전체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N = 332)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성별	.14	2.51*	.09	2.34*	.01	.15
유아의 놀이성			.67	16.59***	.37	6.94***
유아의 자아존중감					.44	8.13***
R^2	.02		.46		.55	
ΔR^2	.02		.45		.09	
F	6.32		143.31***		136.52***	

* $p < .05$, *** $p < .001$

3)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8.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N = 332)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유아의 놀이성	성별	.14	2.51*	.05	1.14	.00	.09
	신체적 자발성			-.11	-1.83	-.05	-1.08
	사회적 자발성			.15	2.67**	-.08	-1.35
	인지적 자발성			.35	5.81***	.12	2.09*
	즐거움의 표현			.12	2.02*	.08	1.432
	유머 감각			.28	4.60***	.25	4.89***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능감				.44	7.18***	
	소속감				.18	3.40**	
	가치감				.16	3.90***	
	통제감				.16	3.49**	
R^2	.02		.49		.65		
ΔR^2	.02		.48		.16		
F	6.32		54.46***		63.42***		

* $p < .05$, ** $p < .01$, *** $p < .001$

아울러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을 하위범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Durbin-Watson 지수는 1.87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는 10 미만인 1.22~3.56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통제 변인인 유아의 성별을 투입한 모형1은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인인 유아 놀이성의 하위범주가 투입된 모형2에서는 설명력이 49%로 나타났으며($F = 54.46,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아 자아존중감의 하위범주가 투입된 모형3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136.52, p < .001$),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16% 증가하여 총 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 놀이성의

하위범주 중 사회적 자발성($\beta = .15, p < .01$), 인지적 자발성($\beta = .35, p < .001$), 즐거움의 표현($\beta = .12, p < .05$), 유머 감각($\beta = .28, p < .001$)과 유아 자아존중감의 하위범주 중 유능감($\beta = .44, p < .001$), 소속감($\beta = .18, p < .01$), 가치감($\beta = .16, p < .001$), 통제감($\beta = .16, p < .01$)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는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범주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범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182명, 만 5세 유아 150명, 총 33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일반적 배경(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및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와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자발성,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 유아의 창의적 인성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에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발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놀이성 관련 국내 연구들(김영랑, 2002; 이민국,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전적 요인으로 더 높은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신체적 움직임이 많으며, 또래와 더 활동적이고 거친 신체 놀이(rough & tumble play)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Maccoby(1984)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달리 유아의 놀이성이나 창의적 성향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영랑, 2022; 심수현, 2017)도 있어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후속적 검토가 요구된다. 즉, 유아가 처한 다양한 맥락이나 유치원 교실의 놀이 접근 양상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이 적절히 발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은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이나 자아존중감이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김영랑, 2022; 심수현, 2017)와 유아의 창의적 인성이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홍미경, 2008)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달리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이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옥태순, 2016; 유연옥, 허미자, 1999; 홍미경, 2008)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발달단계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후에는 연령과 출생순위에 따른 경향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세 변인 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놀이성의 하위요인과 창의적 인성 간에 정적상관이 있으며, 인지적 자발성, 유머 감각, 즐거움의 표현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이 높은 유아가 창의적 인성 또한 높다는 고소영(2003)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이 창의적 인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지연(2021)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놀이 속에서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어 높은 창의적 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유아들의 자발성을 지원하면서 유머 감각 또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부모 교육을 통하여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한 교사교육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 간에도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유능감과 통제감의 상관이 높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가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심윤정, 2021). 또한,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숙희와 유경훈(2011)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인성을 증진하기 위해 유아가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소향과 조준오(2016)는 유아기에 일상 생활 속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도전과 실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기교육이나 인지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유아교육 현장과 가정에서 유아가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유능감과 가치감을 느끼도록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창의적 인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들이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과업 기회를 제공해주며, 조금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아 개개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인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차이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변인을 통제하고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이 창의적 인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37, p < .001$)을 미치며,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 = .4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정미라 등, 2015)와 일치하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원경, 우남희, 2002; 조현정, 2010)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모두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발견한 점에서 의미 있게 사료된다. 아울러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6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6.52, p<.001$),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범주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범주가 창의적 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향력의 크기는 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발성($\beta = .35, p < .001$)과 유머 감각($\beta = .28, p < .00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회적 자발성($\beta = .15, p < .01$)과 즐거움의 표현($\beta = .12, p < .05$)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발성과 사회적 자발성, 유머 감각이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황윤세(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유머러스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유아가 여러 놀이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인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유능감, 소속감, 통제감, 가치감도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유능감($\beta = .44, p < .001$)이 높았고, 다음으로 소속감($\beta = .18, p < .01$)과 가치감($\beta = .16, p < .001$), 통제감($\beta = .16, p < .0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기제가 되어 창의적 인성에 긴밀한 영향을 가진다는 옥태순(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남윤주(201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가 모험심과 도전 욕구가 강해 도전적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자기 능력을 믿고 몰입하므로, 이런 성향이 발현되어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유아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과제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능감이 높은 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이고 유능하게 여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김지연(202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 중 인지적 자발성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인지적 자발성이 높은 유아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내며, 상상 놀이 과정에서 융통성 있는 사고력을 발휘한다는 김영량(2022)의 연구와 일부 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놀이성 중 유머 감각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며,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창의성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윤정(202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머가 섞인 용어를 활용하도록 수용적이고 자유로운 교실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유아가 주도하는 농담이나 재미있는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줌으로써 유아들이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가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창의적 인성을 지원할 때, 창의적 인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비롯한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은 기

질적으로 타고난 성향 또는 개인 내적인 특성이기는 하나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증진될 수 있으며, 주어진 환경이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유아에게 내재된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을 발견하고, 창의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현장에 체계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유아의 놀이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놀이 과정에서 또래들에게 잘 다가가며,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아 모든 일에 자기 능력을 믿고 몰입할 줄 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유아의 태도가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해야 하고,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한 교사교육 활동 지원과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 요인인 유능감과 가치감, 그리고 놀이성 하위요인인 유머 감각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며, 농담이나 재미있는 말을 즐겨 하는 유머러스한 성향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아의 유머감을 바라보는 교사나 부모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격려해주는 태도도 요구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된 현장 지원과 부모 및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창의적 인성, 놀이성,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이 아니라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만 5세 유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기에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에서 측정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 대상의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질문과 관찰을 통한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을 담임교사가 평정하면서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유아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어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단일 관찰자의 관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실험에 의한 관찰이나 또래 평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여 더욱 신뢰성 높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놀이성보다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본 것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변인 이외에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창의적 인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매우 드물게 다루어졌으며,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을 포함하여 관련 변인간 관계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하였고,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까지 밝혔으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유아교육 현장에 정보 전달을 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소영 (2003).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진 (2015). 유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소향, 조준오 (2016). 유아의 자기 조절력과 정서 조절력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5), 349-374.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5.014>
- 김영랑 (2022). 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한 유아 창의적 성향의 놀이성에 대한 효과.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 우남희 (2002).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3(2), 1-16.
- 김종석 (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2021). 유아의 자아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놀이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호 (2016).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 창의성 교육의 새로운 방향. **교육논총**, 36(3), 1-20. <https://doi.org/10.25020/je.2016.36.3.1>
- 남윤주 (2017).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정서표현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2), 27-41.
- 단현국, 이미숙 (2006). 교사용 유아 자기존중감 척도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81-104.
- 문용린, 최인수, 곽윤정, 이현주, 이화선, 이지혜 등 (2010).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 박숙희, 유경훈 (2011).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1(2), 127-140.
- 박은희 (2010).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이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발 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옥, 김준희 (2000).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성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지**, 9(1), 11-28.

- 박찬옥, 김진희 (2014). 역사 인물을 통한 문제해결 활동이 유아의 역사의식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4), 389-408.
- 성은현 (2005).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217-228.
- 심수현 (2017). 부모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숙영, 문시연 (2015). 예술교육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역할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109-125. <https://doi.org/10.14698/jkce.2015.11.109>
- 심윤정 (2021).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의사 결정력 및 창의적 인성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태순 (2016).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 지능, 창의적 인성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연옥, 허미자 (1999). 그림 창의성 검사(TCT-DP)에 의한 유아의 창의성 발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157-183.
- 이민국 (2011). 유아의 놀이성이 자기 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 김수연, 신혜원 (2002). 유아용 창의적 행동특성 검사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85-97.
- 이정미 (2016). 부모의 창의적 인성, 자녀의 창의적 인성 및 자녀의 놀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입귀자 (2011). 창의성 기법을 활용한 유아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영숙 (2008).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창의적 인성 및 양육 태도가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135-159.
- 장영숙, 조정화 (2010). 부모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6(2), 309-336. <https://doi.org/10.24159/JOEC.2010.16.2.309>
- 정다운, 김정희 (2015).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의 정서 지능이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5-20. <https://doi.org/10.14698/jkce.2015.11.005>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2015). 만 4, 5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 능력 및 창의적 행동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3(5), 531-542. <https://doi.org/10.6115/fer.2015.042>
- 정선화, 이체호, 최인수 (2011). 유아 창의성과 교사, 유아의 상호작용 및 가족 기능 간의 관계. **생활과학**, 14, 17-25.
- 조현정 (2010). 유아의 동기 및 자아개념과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20). 만 4세 유아 말놀이에서 교사의 실천과 반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종덕, 문정화 (2011). 소외계층 영재의 영재교육 서비스 만족도 및 자아효능감. **한국창의력교육학회지**, 11(2), 87-105.

- 하주현 (2001). 창의적 사고의 발달 경향 연구. *대한사고개발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1, 75-86.
- 홍미경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4(1), 15-34.
- 황윤세 (2008). 유아의 행동적 자기 조절력과 정서 지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293-309.
- Aguilar, T. E. (1985). Soci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o playfulness. *When Children Play*, 73-76.
- Berkowitz, M. W. & Grych, J. H. (2000). Early character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1), 55-72.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101_4
- Cropley, A. J. (2001). *Creativity in education & learning*. Kogan page.
- Feist, G. J. (2010). The function of personality in creativity: The nature and nurture of the creative personality. In J. C. Kaufman & R. J. Sternberg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113-1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ufman, J. C. & Sternberg, R. J. (2019).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1984). Children's disposition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at 12 and 18 month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459-472. <https://doi.org/10.1037/0012-1649.20.3.459>
- Piirto, J. (1998).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2nd ed.). Gifted Psychology Press.
- Rimm. (1983). *Preschool and kindergarten interest descriptor*. Educational Assessment Service.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ffer, D. R. & Kipp, K. (2013). *Development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9th ed.). Wadsworth.
- Stipek, D. J. & MacIver, D. (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3), 531-538. <https://doi.org/10.2307/1130719>
- Torrance, E. P. (1976). *Guiding creative talent*. R. E. Krieger.
- Vygotsky, L. S. (2004).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childhood. *Journal of Russian & East European Psychology*, 42(1), 7-97. <https://doi.org/10.1080/10610405.2004.11059210>
- Yau, C. (1991). An essential interrelationship: Healthy self-esteem and productive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5(2), 154-161. <https://doi.org/10.1002/j.2162-6057.1991.tb01365.x>

논문투고: 23.06.15.
수정원고접수: 23.07.21.
최종게재결정: 23.08.07.